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력이 온 누리에 힘 있게 펼쳐지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돐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편이어 이룩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을 성실히 경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미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녀저있는 훙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써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솔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솔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훙장보존실, 읊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몽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절제없는 혁명적 성과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동격, 총매진해나가는 선군혁명총전군대오의 앞장에서 자기들 앞에 딛겨진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 갈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4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전에는 대승비, 대시변들을 러이어 이룩하며 주체조선의 민족화기상을 힘있게 펼쳐가고 있는 충정의 총진군길에서 민족화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는 온 나라 천민군인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 이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영광의 날과 더불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가치밀에 인민의 운명개척과 인민주주위업실현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년호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주체혁명원인이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할수 있는 억연기들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4돐

경축 중앙기획부에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모형과 「태양절경축」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워업을 끌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에 없던 혁명적성과로 맞이하자!』, 『모두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정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생

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흥인회 총령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윤길상 재미동로전국원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희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대회에서 보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빛나는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삼천번강도우에 인민의 땅원을 일폐세우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랑과 업적을 드림없이 개총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투에

이 모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백수신국의 앞길에 영원한 충비와 영광의 기치로 휘두리며 이 땅우에 수령님들의 냄새가 실현된 인민의 땅원, 천하제일 강국이 반드시 일어서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굽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민세 높이 밟아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 따라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절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충비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일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사르 알 아сад 각하

나는 수리아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립후 지난 70년간 수리아아랍인민은 세계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작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오늘은 당시의 출마를 뛰어넘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안정,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굳은 지지와 현대상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실히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5(2016)년 4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족화적교육을 위하여 일본본으로 2억 1 88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흥편에 보내시었다.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2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77억 8 799만 390부에 달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주조 무관단이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

공화국 대사관 국방부관이 14일 인민무역

부장인 유희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당의 유일직령군체계를 세워히 확립하며 우리 혁명무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풍물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민족화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관한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다음과

사업하면서 당시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발휘해 인민군대안에 깊이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동지 현철호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5(2016)년 4월 14일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5권 출판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5권』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며 조국의 강성번영파인 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적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광과 고 영예로운 민인적 풍모를 전하는 20전의 회상실기가 펼쳐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환생은 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행동에 구현하여 현실로 꽂고무신 민인적 수령의 숭고한 환생이였다.』

회상실기집 『전승혁명사적지지를 잘 보존관리하여 하겠습니다』에는 전승혁명사적지를 찾으신 대유식 금속상산기지로

시간에 걸쳐 몇몇 사적자료들을

고종래 주시고 사적물보존관과 교양사업에 서나서는 부강한 영파, 인민생활 활상을 위하여 블록체인의 토고를 바치신 거운 치고자심을 주시며 또는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세세년년 전해 가도록 하신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미제침략자들에게 온 가족을 다 잃고 영예로운 군인이 된 정현한 농장일군을 봐온 품에 애아 손꼽아 이끌어 영웅으로 키워주신 광활한 산림보호에 헌신하는 이야기』 등에 반영되어 있다.

회상실기집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5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월한 사상과 명도의 혁명성, 고대한 인민적 풍모를 깊이 새겨 넣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탄생 104돐 경축을 기념하고자 4월 14일 출판되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의 창으로 내세워주시며 그들에게 교육

적용률을 일식으로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신심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가 회상실기집 『학생들이 입은 교복을 볼 때면』에 들어있다.

도서에는 인민들과 평화는 점에서 평화는 옷을 입으시고 위대한 평민으로 겸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오신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보여주는 회상실기집 『나는 지금 사는 01집이면 만족합니다』, 『송고한 인민적 풍모를 새겨안면 나날에』도 출판되었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5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월한 사상과 명도의 혁명성, 고대한 인민적 풍모를 깊이 새겨 넣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탄생 104돐 경축을 기념하고자 4월 14일 출판되는 것이다.

